

“차 없어도 돼요” 함평 자동차극장 ‘가족관람관’ 운영

총 2개소 4~6명 함께 관람 가능
회당 3만원 관별 하루 2회 운영
온라인예매 불가 현장발권 방식
전국 동시 개봉 최신 영화 상영

전라남도 함평군이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소외계층, 차량이 없는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가족관람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자동차극장 내 마련된 가족관람관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관람 공간은 자동차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색 공간으로, 지역 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시도다.

관람관은 무궤도열차 관람관과 기존 매점을 리모델링한 가족관람관 등 총 2개소로 관마다 4~6명이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회당 3만원이며 관별로 하루 2회 운영된다. 영화 시간표는 함평자동차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은 사전 전화예약(061-320-2226·2228) 또는 당일 현장 발권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하다.

함평군 함평읍 함창로 1162 일원에 위치한 자동차극장은 황금박쥐관(68대), 나비관(112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 동시 개봉 최신 영화를 상영하며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영화를 통한 세대 간 소통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관람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가 없는 분들도 불편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장성군, 6월13일까지 접수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전라남도 장성군은 19일부터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당 학기별 최대 200만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일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년 5월15일 이전 전입)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1일 이후 출생) 국내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장성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89명 선발
함평군, 이달 말까지 지급 계획

전라남도 함평군이 2025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을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역 학생들에게 4억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지난 16일 2025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89명 선발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말까지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모집한 후 장학생 선발 심사를 거쳐 대학생 242명, 고등학생 30명, 특기자 17명 등 총 289명을 선발했다.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원 규모는 4억 6000여만원에 달하며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기자 유형 대상자를 기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초·중·고·대학생 전체로 확대했다.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 내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오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산사태 발생 취약지 예방·점검
장성군, 관내 52곳 선정 추진

전라남도 장성군이 하절기 산사태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산사태 취약지역 52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다.

장성군 산림편백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확인,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즉각 조치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피소 운영 상황, 안내표지판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도 확립했다. 군은 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대피 조력자를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통한 상황전파도 실시한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가동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올여름 큰 비가 예보된 만큼, 빈틈없는 산사태 예방·대응책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지난 15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이동양봉농가 현장기술 지원

전라남도 함평군이 꿀벌 사라짐 현상과 병해충 확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동양봉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경북 성주와 거창 일원에서 아까시나무꽃이 개화하는 최대 유밀기에 맞춰 지난 15일 지역 이동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의 한 해 꿀 생산량의 85%를 수확하는 시기로 이동양봉은 6월 말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로 이동해야 아까시꽃을 비롯, 야생화(잡화)꽃과 밤꿀 채밀을 이어 나간다.

이 시기에는 원활한 채밀을 위해 출입구 충분히 열기, 꿀벌 착륙판 설치, 꿀이 찬 벌집은 위로 올려주고 그 자리에 빈 벌집 넣어주기, 희생군 관리 등 분봉열이 발

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채밀 기간에는 약제 처리를 중단하고 후반기에는 도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양질의 꿀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꿀벌은 양봉 산업뿐 아니라 농작물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물자원이다”며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정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2014년 이전 번호판 대상

전라남도 담양군이 관내에 설치된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랜 시간 사용된 건물번호판은 글씨가 지워지거나 탈락된 경우가 많아 택배나 배달 서비스, 응급 상황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중 훼손되거나 색이 바래 주소 식별이 어려운 시설이다.

지난 2월 완료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했으며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봉산면, 창평면, 대덕면, 용면, 월산면 등 5개 면 지역에서 총 3711개의 건물번호판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담양읍을 중심으로 3328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소 식별이 어려운 노후 번호판을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성과 도시미관을 함께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 교육
나주시, 정부 차원 활용 확대 일한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대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10개 부서와 모든 읍면동(20개)까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확대 보급하고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재난대응 시 전용으로 활용하는 무선 통신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 전체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급해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소통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보급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경찰, 소방, 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교신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부서, 읍면동과는 주 1회 이상 교신 점검을 실시한다.

나주=김용의 기자